

‘황금장갑’ 최다 보유 KIA 올해는 ‘무관의 시즌’ 되나

9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양현종 등 9명 후보에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호랑이 군단’이 골든글러브 최다수상팀 자리를 지킬까?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선수를 가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는 9일 오후 5시 15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수트를 차려입은 선수들은 레드카펫에 입장하면서 시상식의 시작을 알린다.

행사에 초대된 선수들은 야구팬들과 하이파이브 세리머니를 하며 입장한 뒤 포토월에서 포토타임과 인터뷰 시간을 갖는다.

KBO 상벌위원회에서 선정한 페어플레이상과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뽑은 골든포토상 등 특별상 시상과 함께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페어플레이상 주인공은 LG 채은성으로 결정됐다.

이어 10명의 선수가 골든글러브 주인으로 호명된다.

KIA에서는 양현종(울랜더 터너(이상 투수), 최형우(지명타자), 안치홍(2루수), 박찬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이창진·터커(이상 외야수) 등 9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을 포함해 모두 67개의 ‘황금장갑’을 수집하며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통산 최다수상 공동 1위 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시즌 2루수 차영화, 외야수 김준환을 시작으로 9번째 우승을 이룬 1997년까지 매년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16시즌 동안 탄생한 타이거즈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1991년에는 선동열(투수), 장재근(포수), 김성한(1루수), 한대화(3루수), 이호성·이순철(이상 외야수) 등 6명이 한 번에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해태의 몰락과 함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타이거즈는 4년 연속 ‘무관(無冠)의 시상식’을 보냈다.

2001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이종범(외야수)이 2002년 김종국(2루수)과 골뚫던 골든글러브의 맥을 이었지만, 2000년대는 ‘남의 잔치’가 되는 해가 많았다. 2000·2001·2004·2005·2007·2008·2010·2013·2014·2015년 수상자 명단에 KIA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우승을 이뤘던 2009년과 2017년 모두 9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2009년 로페즈(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김상현(3루수)가 나란



양현종

히 이름이 불렸고, 2017시즌에는 양현종(투수)을 필두로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상 외야수)가 동시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안치홍 홀로 소프트라이프를 받았지만, 올 시즌에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현종이 평균자책점 1위(2.29), 탈삼진 3위(137개), 승리 5위(16승) 등의 성적을 내며 프로야구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투수상’ 등을 받는 등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투수 3관왕에 오른 ‘MVP’ 린드블럼(두산)의 기세가 매섭다.

한편 시상식의 ‘단골손님’이었던 이종범과 이순철은 내·외야를 모두 석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유격수로 4차례 주인공이 되었던 이종범은 일본 복귀 후에는 외야수로 두 개의 골든글러브를 추가했다. 이순철은 신인이었던 1985년 3루수 골든글러브를 쟁한 뒤 이후 외야수로 4차례 더 수상에 성공했다. 이순철은 타이거즈 유일의 신인왕이기도 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

ADT캡스플레이어 2019 시상식
양현종 투수·박찬호 유격수부문 수상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 이정후가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가 됐다.

이정후는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ADT캡스플레이어 2019’ 시상식에서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다.

올해 7번째로 진행된 행사는 국내 유일의 호수비 시상식으로 보안 전문기업 ADT캡스가 개최했다. 매 경기 최고의 호수비 순간을 선정하고, 시즌 종료 후 수비평가 지표 ADT캡스 수비율을 기준으로 시상식을 연다.

105.51%의 수비율로 중견수 부문 1위에 오른 이정후는 전문가 투표를 통해 종합 1위를 차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 시즌 140경기에 나와 2개의 실책만 기록한 이정후는 ‘ADT캡스플레이어’에 16회 선정되기도 했다.

이정후는 19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0.336의 타율과 함께 91득점, 68타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KIA 타이거즈 박찬호는 101.90%의 수비율로 유격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이외에 1루수 오재일(100.27%·두산 베어스), 2루수 박민우(100.95%·NC 다이노스), 3루수 최정(101.67%)·좌익수 노수광(104.08%·이상 SK 와이번스), 우익수 구자욱(102.26%·삼성 라이온즈)이 최고 수비수로 선정됐다. 투수 부문에선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 이정후

KIA 양현종(108.51%), 포수 부문에는 NC 양의지(96.8%)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0 KLPGA 첫 대회 ‘효성 챔피언십’ 오늘 개막



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장에서 열린 2020시즌 첫 대회인 효성 챔피언십 공식 포토콜에서 박현경(왼쪽부터), 최혜진, 박지영, 조아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안병훈·임성재 “오랜 꿈을 이뤘다”

프레지던트스텝 골프 대회 출전

유럽 제외한 나라 인터내셔널 팀

13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프레지던트스텝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안병훈(28)과 임성재(21)가 “오랜 꿈을 이뤘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으로 격년제로 진행되는 프레지던트스텝 올해 대회는 13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인터내셔널 팀은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의 선수로 구성되며 올해 출전하는 12명 가운데 한국 선수

로는 안병훈과 임성재가 선발됐다.

프레지던트스텝에 한국 선수 2명 이상이 동시에 출전하는 것은 2011년 최경주와 양용은, 김경태 이후 올해가 8년 만이다.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아시아 최초의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는 5일 후원사인 C.대한통운을 통해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스텝을 보면서 항상 출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뤄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안)병훈이 형과 같이 나가게 돼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형과 같은 팀에서 플

레이해서 꼭 미국 팀을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제이슨 데이(호주)의 부상으로 ‘대타’ 자격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안병훈은 “프레지던트스텝에서 인터내셔널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다”며 “다음 주에 이 꿈이 현실이 되면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대회 개막을 밝혔다.

올해 임성재와 안병훈이 출전하면서 역대 프레지던트스텝 출전 경력이 있는 한국 선수는 최경주, 양용은, 김경태, 배상문, 김시우에 이어 7명으로 늘었다.

최경주는 올해 대회 인터내셔널 팀 부단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 김재환,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한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31·사진)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다.

두산은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재환에 관한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수년 전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출전으로 포스팅 신청에 필요한 출전 일수를 채웠고, 프리미어12 종료 후 구단에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알렸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프리미어12 대회 이후 김재환의 에이전트와 몇 차례 논의한 끝에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구단을 통해 “아직 어떤 구단이 관심 있는지,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며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 마감기한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까지다. 단 하루 동안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산 관계자는 “에이전트 측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08년 두산을 통해 프로 무대를 밟은 김재환은 2018시즌엔 1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기도 했다. 올 시즌엔 136경기에서 타율 0.283, 15홈런, 91타점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백혈병 극복’ 카라스코, MLB AL올해의 재기 선수



2019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백혈병을 이겨내고 그라운드에 복귀한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32·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올해의 재기 선수로 뽑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일 ‘올해의 재기 선수’(Comeback Player of the Year)로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카라스코, 내셔널리그에서는 강타자 조시 도널드슨(33·애들랜트 브레이브스)이 각각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불펜투수인 카라스코는 지난 6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아 팀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3개월여 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카라스코는 9월 1일 로스터가 확대되는 시점에 복귀해 불펜투수로 활약을 이어갔다.

카라스코는 9월에만 11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6.60을 기록했다. 카라스코는 지난 10월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로베르트 클레멘테 상도 받았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애들랜트 브레이브스의 주전 3루수 도널드슨이 재기상의 주인공이 됐다. 도널드슨은 지난해 어깨와 종아리 등에 크고 작은 부상으로 52경기에 출장하는 데 그쳤으나 올 시즌에는 155경기에 나서 타율 0.259, 37홈런, 94타점을 기록했다.

2005년 제정된 ‘올해의 재기 선수’는 MLB.com의 30개 구단 담당 기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연합뉴스